

반사회적 경향성의 특징과 기원

2023.08.22.

우리 사회에 만연된 청소년 비행이 핵폭탄만큼이나 위협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비행의 위협과 핵폭탄의 위협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요소는 우리 내부에 있는 파괴적인 잠재력을 위험한 수준으로 솟아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그 위험 수준에 대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또 그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위니콧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을 치료하는 일에서 자신의 사상과 실천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갔다.

방어와 비행 뒤에 숨어 있는 요소와 접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적은 없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반응하기 (reacted to)보다는 함께 극복해(lived through) 나갈 때 긴장을 풀 수 있었고 신뢰를 쌓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삶의 자세는 말로 가르칠 수 없으며, 삶의 관계 속에 직접 동화되어야만 아이들이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경험에서 배웠다.

오늘날에도, 비행 아동은 자신을 보살펴주고 수용해주는 것과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찾았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파괴해버린다. 이때 이 아동을 포용하는 환경, 즉 인간애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견고한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

사랑과 증오는 모두 공격성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 공격성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부딪치는 선과 악은 개인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특성 중 공격성은 특히 감춰져 있고, 위장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공격성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증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가 집짓기 장난감을 쌓은 후에 그것을 쳐서 넘어뜨리고 싶을 때, 그 순간 아이 자신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그 탑을 세울 수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때만 그러한 파괴 충동을 표현할 수 있다.

다소 소심한 4세 된 소년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한다. 소년은 보모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함을 친다. '집을 불태워 버릴 거야! 창자를 꺼내 찢어 버릴 거야!' 이러한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말로 느낄 것이다. 유아들은 마술적으로 파괴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은 마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공격 행동을 변형시킨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은 매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동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는 실제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다. 예를 들어 소품을 나갔을 때 아동의 공격성이 발동하면, 가족들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를 지치게 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한다. 처음에 아동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모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다음에는 자신의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것을 그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동은 부모에게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지치게 만든다. (두 살 반 된 남아아가 치료받으러 왔다. 그 아동은 보통 때는 모범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흥분하면 사람을 피가 나도록 물곤 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머리칼을 잡아 뜯거나 도자기를 넘어뜨려 깨뜨리기도 했다. 그리고 발작이 끝나면,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슬퍼하곤 했다.

그 이동은 자신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만을 골라서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로 병약한 외할머니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평소에는 외할머니의 의자를 가져다가 편안하게 돌봐드리며 마치 어른이 하듯이 외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차적 공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은 끊임없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자극을 받는 것으로 보였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가 흥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만 문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 일차적인 공격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공격 후에 뒤따르는 양심의 가책은 대개 (그 또래 아동의 경우) 실제적인 해(害)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이 아동의 분석에서 그의 공격 행동 안에는 확실히 일차적 공격성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주 어린 유아를 살펴보자. 유아가 온 힘을 다하여 손상을 입히려 하고 한다 해도 실제로 그리 큰 손상을 입힐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유아는 자신의 공격성을 순수한 형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 점이 명확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유아기 어머니의 젓가슴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잇몸으로 젓꼭지를 물어 상처를 입히고, 이가 나면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기가 갑자기 내 가슴을 파고들어 오더니 잇몸으로 젓꼭지를 물었는데 잠시 후 젓꼭지에서 피가 흘렀어요. 나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과 공포를 느꼈어요. 이 조그만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은 오래 갔지요. 나는 이 사건이 그 아이가 좋은 음식에 대한 확신을 발달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환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아기가 실제로 어떻게 했든 간에, 비록 아기들이 젓가슴을 파괴하려 하고 그들이 젓을 먹음으로써 젓가슴을 파괴한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증거가 있다.

아기들은 대부분은 실제로 어머니 젓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보통 아기는 이삼 백 회 정도 젓을 먹는 동안에 엄마 젓을 깨무는 경우는 열두 번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기들은 주로 흥분했을 때나 좌절되었을 때 문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아기는 날 때부터 아래 앞니가 나 있어서 처음부터 깨물기도 하고 젓꼭지

를 다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젓가슴이 다치는 것을 막으려고 스스로 젓을 먹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 젓가슴을 무는 대신, 아기는 자기 아랫입술의 안쪽을 씹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짓물렀다.

아기가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그러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또한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격 충동을 억압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이미 출생 직후부터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숨기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 즉 노여움을 타고 소리를 질러대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깨면 먹고 먹으면 자는 순한 아기도 있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는 순한 아기가 그렇지 않은 아기 보다 반드시 더 좋은 정신건강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유아기에 유아가 격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정서 발달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유아가 18개월쯤 되어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될 때,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유아가 엄청난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그가 자신의 파괴력으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이때 파괴는 주로 유아의 환상 안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본능적 공격성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공격성이 곧 미움에 봉사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래 식욕의 일부분이거나 본능적인 사랑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다. 그 공격성은 흥분하면 증가하며, 또한 그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탐욕(greed) 안에는 사랑과 공격성이 융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이 사랑은 구강기적 사랑을 말한다.

지금까지 나는 세 가지 사실을 서술했다.

(1) 유아의 사랑은 잔인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위험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탐욕이거나 일차적 식욕 사랑 (appetite-love)이다. 그것은 잔인하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우연히 발생한다. 유아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음과 몸의 평화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험에 빠뜨린다. 보통 유아는 아주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유아는 어느 정도의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만일 유아가 자신을 좌절시킨 대상을, 그리고 자신의 미움을 받아줄 누군가를 외부세계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유아는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게 된다.

(2) 유아는 차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과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을 분리시킨다. 예를 들어, 유아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물건을 깨무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깨물지 않고도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즐길 수 있다. 유아는 이런 식으로 식욕 안에 있는 공격 요소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자신이 화가 날 때 나쁜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 실재와 싸울 때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한다.

(3) 아동은 어떤 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하여 내적 세계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격이 풍부해진다. 이러한 정신 과정은 음식을 신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신체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과 평행을 이룬다.

잔인하고 파괴적인 세력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할 때, 그 개인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

인가를 해야 한다. 그때 그는 내적 세계를 외부세계에서 극화하고, 스스로 파괴 행동을 함으로써 외부의 권위에 의한 통제를 불러들인다. 통제는 이런 방식으로 환상을 극화함으로써 본능을 크게 억압하지 않으면서 형성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로부터의 통제는 임상적으로 우울한 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통제야말로 더욱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본능적인 삶은 활성화되며, 개인은 공격성을 포함하는 본능 충동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상 속에서 입은 상처를 실제의 삶 속에서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환상 세계야말로 놀이와 일의 기초가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이 어떤 내적 세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의 승화 과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있는가가 결정된다. 만약 파괴 충동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강하다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를 돕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쁜 환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 환상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교사가 아동을 관리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공격성은 거의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나쁜 내적 실재가 극화된 것이다. 종종 그것은 자위나 지나친 감각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행동은 성공적일 경우 외적 실재와 내적 실재 사이를, 그리고 신체적 감각과 환상 사이(그 환상은 주로 무의식적 환상이다)를 연결시켜준다. 자위행위를 포기하는 것과 반사회적 행동이 시작되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아동이 인식하기에는 너무 끔찍스러운 내적 실재를 외적 실재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위와 반사회적 행동은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외적 실재와 내적 실재 사이의 연결은 내적 실재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최초의 본능 경험이 연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은 정신분석적 방법에 의해서만 추적될 수 있으며, 그 환상은 지나치게 두려운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도 견뎌낼 수도 없기 때문에 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석 치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즉 안으로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적 자기를 변화시킨다. 나쁜 요소를 처리하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아동과 성인 모두의 끊임없는 과제이다. 신체로부터 생겨나는 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극화되고 (환상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오락 활동이나 일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좌절감과 슬픔을 아주 많이 제거해준다. 소년들은 권투나 축구를 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딪치고 차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환상에서) 자신의 주먹과 발로 나쁜 것을 몰아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소녀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이 좋은 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안에서 좋은 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환상일지라도)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텅 비어 있거나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소녀의 생각은 바로 그 소녀 자신의 공격성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또한 본능적 욕구가 충족될 때 얻게 되는 평안한 상태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흥분이 좌절될

때 자신을 지배할 수도 있는 공격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위행위는 후자(공격적 요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전자(평안을 얻는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환경에 의해 자극되는 증오나 좌절은 개인의 무의식적 환상 안에 존재하는 긴장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반응과 다룰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내적 실재 안에 있는 공격성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피학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이 한편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벌을 받는 데 고통을 사용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 성적인 흥분과 만족을 얻는 방법이다.

둘째 여기에는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성, 즉 끔찍스러운 내적 세계에 대한 극화된 반응을 관리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 공격성의 대상은 그 공격성에 대한 통제를 불러낸다. 성인들의 임무는 확고한 권위를 제공함으로써 이 공격성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일정 테두리 안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의 나쁨을 극화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위를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청소년들의 건강은 권위의 철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 가는 능력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부모와 교사의 임무는 권위가 너무 약해서 아이들이 미쳐 날뛰거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떠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불안 때문에 권위를 떠맡는다면 그것은 독재가 된다.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실험을 해온 사람들은 아동이 과도하게 책임을 떠맡았을 때 어른 못지않은 잔인한 관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셋째 (여기서 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성숙한 공격성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남자 아동에게서 명백히 드러나며, 대개는 게임과 학업 등에서 그들의 경쟁심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힘 있는 공격성은 경쟁자를 죽이는 생각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한 공격성은 치료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해주고 허용해주어야 할 어떤 것이다. 만약에 그 공격성이 관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대신법이 그 관리를 떠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공격성은 회복과 보상의 작업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모든 놀이, 일 그리고 예술의 배후에는 무의식적 환상과 무의식적 갈망(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속에서 행하여진 해악에 대한 무의식적 죄책감이 존재한다. 감상주의는 건설적인 것의 근처에 놓여 있는 파괴성에 대한 무의식적 부인을 내포하고 있다. 감상주의는 아이의 발달을 시들게 하며, 결국에는 직접적인 형태의 파괴를 통해서 자신의 파괴성에 대해 깨닫게 한다. 만약 환경이 감상적이지 않았다면, 그는 건설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파괴성을 간접적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가 아동에게 창조적인 표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동으로 하여금 파괴적 충동을 표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옳지 않다. 여기에서 모든 결과물에 대한 감상적이지 않은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작더라도 모든 성취의 배후에 있는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적인 사랑과는 달리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공격성이 인정되고 절제될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인격 형성이 지닌 목표 중의 하나는 본능적인 것을 더욱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잔인성과 탐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에만 그것은 승화된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이 장난감 벽돌로 세운 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그가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아동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공격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 가지는 공격성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좌절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격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두 가지 근원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아동은 항상 발달과정에 있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성숙에 관한 것이다.

때때로 공격성은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며, 또는 싸움을 걸 대상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공격에 대상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띤다. 종종 공격 충동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쩌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몇 가지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나는 일반적인 설명을 해보겠다. 원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설령 모든 인간이 독특한 존재유형과 개인적인 특성을 갖게 하는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 해도 성립될 수 있는 가정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아와 아동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인간 본성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으며, 초기 유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동안의 성격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은 성, 인종, 피부색, 신념이나 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 외형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인간사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물론 걸보기에 어떤 유아는 공격적인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유아는 처음부터 거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두 아동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공격 충동을 다루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공격성이 시작되는 초기 형태를 유아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출생 전에 꿈틀거리는 태아의 움직임에서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느끼는 태아의 팔다리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난다. 유아의 신체 한 부분이 움직이면, 유아는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무엇인가와 마주치게 된다. 관찰자는 이것을 툭툭 치거나 발로 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아(태어나지 않았거나 갓 태어난)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person)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그런 행동을 툭툭 치거나 발로 차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유아는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속에서 일종의 근육의 쾌감을 얻고,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움직임이 분노나 증오를 나타내거나 그것을 조절하는 상태로 발달해 가는 유아의 발달과정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아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치는 행동이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그다음에는 그가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대상을 보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아동의 파괴적인 생각과 충동이 어떠한 행동 유형으로 조직화되는 방식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건강한 발달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아동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파괴적인 생각과 그러한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아동의 꿈과 놀이에서, 그리고 아동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수용적인 환경 안에서 표현되는 공격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유아기의 공격 행동은 유아가 주관세계 바깥의 세계를 발견하고 외부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끈다. 따라서, 공격성의 가장 초기 형태는 움직이고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는 단순한 충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격성은 항상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예로, 대담한 아동과 소심한 아동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공격성과 적대감을 개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격성에서 벗어나는 성향이 있으며, 후자는 공격성을 자기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하고, 공격성을 두려워하거나, 공격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대담한 아동이 표현하는 적대감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적대감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면에, 소심한 아동은 결코 만족스럽게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기대한다. 많은 경우에 문제는 실제로 그 기대 안에 놓여 있게 된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의 억압된 공격 충동을 다른 사람의 공격성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박해가 없는 경우, 그는 박해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아동은 항상 박해를 기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상 속의 공격자를 공격한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대부분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대극 현상이 공격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공격성을 쉽게 잘 표현하는 아동과 그와는 반대로 공격성을 '내부'에 간직한 채 긴장하고 지나치게 통제적이며 진지한 아동이 있다. 이때 아동의 모든 충동과 창조성은 상당한 정도로 억제된다. 왜냐하면, 창조성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자유로운 삶 속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격성을 내부에 간직할 경우, 아동은 내적 자유를 어느 정도 잃는다고 하더라도, 타자를 배려하고 세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아이의 이런 자기 통제력이 발달되지 않으면, 세상은 아동의 무자비함에 의한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경우, 아동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볼 수 있고 외부의 대상들이나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기 통제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가 주기적으로 감정을 폭발하거나 공격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거나 사악한 행동을 저지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동은 그런 행동을 저지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여기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과 아동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다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뿐이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성숙한 대안 중의 하나는 꿈을 꾸는 것이다. 아동은 꿈에서 파괴와 살생을 경험하며, 이 꿈은 신체의 흥분과 관련된다. 꿈은 실제 경험이지 지적인 연습이 아니다. 아동이 꿈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혼자서 또는 다른 아동과 함께 온갖 종류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그 꿈이 지나치게 파괴적이거나 신성한 대상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거나 혼돈 상태가 지배하게 될 때, 아동은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난다. 이때 어머니

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줌으로써 악몽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는 아동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외부 현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반 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그때 이상하게도 악몽 자체는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꿈과 백일몽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시간 동안 환상들을 엮어내는 백일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백일몽과는 달리, 꿈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끝난다. 꿈은 잊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말했듯이, 놀이는 환상에서, 즉 깊은 무의식의 층에 있는 전체 저장고에서 그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징을 수용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결과 아동은 냉엄한 현실에서 부딪치는 힘든 갈등으로부터 상당한 안도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동이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또한 어머니를 잡아먹기를 원할 때, 혹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할 때, 그러면서도 그 증오나 사랑을 삼촌에게로 전치 시키지 못할 때, 혹은 갖태어난 아기를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대신 장난감을 없애는 것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아동은 매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순간에 아동들은 종종 고통을 겪는다. 보통, 아이는 초기부터 상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아동은 상징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경험 안에 넉넉한 공간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유아가 아주 초기에 자신이 귀여워하는 특별한 물건을 갖게 될 때, 그 물건은 아동과 어머니 모두를 나타낸다. 그것은 아동의 입안에 있는 엄지손가락처럼 결합의 상징이며, 이 상징은 나중에 어떤 소유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놀이는 상징을 받아들이는데 기초해 있으며,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내적 정신 실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내적 정신 실재의 경험이야말로 정체감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 내적 실재 안에는 사랑뿐 아니라 공격성도 존재한다.

아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파괴에 대한 또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건설적인 충동이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이 건설적인 충동이 아동 자신의 본성에 있는 파괴적인 측면에 대한 책임성을 아동 스스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노력해왔다. 아동이 건설적인 놀이를 하기 시작하고 놀이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건강의 징표가 된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부터 옮겨 심을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건설적인 놀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동이 부모 또는 대리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동이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과 건설적인 충동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기회나 가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기여' 하고 참여할 기회를 아동에게서 빼앗을 때 부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 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누구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것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가정에서 자신이 할 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아동은 아기를 돌보거나 침대를 정리하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거나 빵을 만드는 시늉을 함으로써 엄마의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 이때 만족스러운 참여 조건은 누군가가 그러한 시늉들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것이다. 만약 이때 아동을 비롯

는다면, 그 아이의 행동은 단지 흉내 내는 것으로 가치 절하되고 아이는 신체적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 지점에서 아동의 직접적인 공격성이나 파괴성은 쉽게 분출할 수 있다. 아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은 보통의 일상 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한 유아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부숩버리는 행동 특징을 보인다. 그는 차츰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고 보복을 하는데, 소리 지르고 침을 뱉고 대소변을 싸는 행동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아동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있게 되고, 그 모순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동에게 있어 공격성과 사랑이 결합된 가장 중요한 예 중 하나가 깨무는 충동인데, 이것은 생후 약 5개월 이후부터 중요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깨무는 충동은 온갖 종류의 음식을 먹는 즐거움으로 통합된다. 본래, 깨물고 싶고 깨물고 싶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대상, 즉 어머니의 몸이다. 따라서 음식은 어머니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또는 아버지나 그밖에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기와 아동이 적절한 순간에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생각과 흥분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따라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오스카 와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죽인다. 이 말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는 자신이 상처 입힌 것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다.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이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놀이하고, 또 일하는 데에 이러한 공격적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공격성의 기원은 어디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신생아의 발달과정에서 아기가 자연적인 첫 움직임을 나타내고 또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아왔다. 또 그러한 것들이 즐거운 것일 수는 있으나 그것들에서 공격적인 의미를 찾기란 어렵다고 간주했다. 왜냐하면, 아직은 유아가 한 인간으로서 적절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유아가 아주 초기에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랑하는 세계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사랑과 융합되지 못한 유아의 파괴 충동의 잔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의 마술 세계 속에서는 눈을 감음으로써 세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다시 눈을 뜨고 새로이 봄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욕구가 나타남으로써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독가스와 폭발물과 같은 무기는 유아의 마술 세계 안에 마술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현실성을 제공한다.

대다수 아동은 초기 단계에 충분히 좋은 양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인격의 통합을 성취함으로써 무자비한 파괴성을 대대적으로 폭발시키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의 성숙 과정을 촉진시키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신체적인 관계에서 정서적인 관계로 바뀔 때, 또는 신체적인 관계가 정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풍부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

어머니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아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다음 질문이 기다린다; 우리는 인간 존재 안에 내재하고 파괴적인 행동이나 피학적인 행동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이 세력의 기원에 대해 과연 알고 있는가?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은 마술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 마술적인 파괴는 아주 초기 유아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그것은 마술적인 창조와 나란히 진행된다. 모든 대상을 유아가 원시적이거나 마술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의' 부분에서 '내가 아닌' 부분으로, 또 주관적으로 지각된 현상에서 객관적으로 지각된 대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한다. 보통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난다. 그러나 모성적 제공에 결함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급작스럽게 유아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어머니는 이 중요한 초기 발달 단계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보살펴주어야 한다. 이러한 보살핌은 유아가 자신의 마술적인 통제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줄 수 있다. 성숙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유아는 파괴적으로 될 수 있고, 세계를 마술적으로 없애버리는 대신에 미워하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격성은 하나의 성취로 볼 수 있다. 마술적인 파괴와 비교해 볼 때, 공격적인 생각과 행동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며, 미움은 문명의 징표가 된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의 전체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특히 초기 단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와 부모의 돌봄이 있을 때, 대부분 유아는 건강을 획득하고, 마술적인 통제와 파괴성을 버리고 공격성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함께 만족을 느끼고 부드러운 관계들을 즐기며 아동기의 삶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내적 풍부함을 성취한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발달

'관심'이란 용어는 '죄책감'이란 말에 의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진 현상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루자는 의미에서 선택된 단어이다. 죄책감은 양가감정과 연결된 불안을 나타내며,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아가 좋은 대상 - 원상(object-*imago*)을 파괴시켰다는 생각과 함께 그 원상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관심의 능력은 통합과 성장을 뜻하며, 특히 본능적 욕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심은 개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려하고 생각해주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발달이론에서 말하는 성기기 수준의 관심은 가정(*family*)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부부 모두가 - 쾌락을 넘어서 성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관심의 주제는 훨씬 광범위한 문제로 다가오며, 관심의 능력은 모든 건설적인 놀이와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우리가 관심의 능력을 언급할 수 있으려면, 그전에 이미 아기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어야 한다. 관심의 능력은 건강의 문제이며, 이때 이 능력의 확립은 돌봄과 성장 과정을 통한 복잡한 자아 조직화를 전제로 한다.

융합은 정서 발달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이며, 아기는 이를 통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성애적이고 공격적인 욕동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성애적인 측면에는 만족추구와 대상추구 모두가 존재하며, 공격적인 측면에는 근육 성애를 사용하는 복합적인 분노와 증오(비교를 위한 좋은 대상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있다.

또한 전체적인 공격 - 파괴적 충동에는 파괴 안에 사랑이 담긴 원시적 대상관계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의 일부는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논의는 아기가 성애적인 경험과 공격적인 경험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의 논의에서 공격성의 기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말할 필요는 없다. 즉 관심의 능력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아동이 양가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달과정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유아는 신체 기능(환상은 원래 신체 기능의 상상적 전개 물이다)에서 뿐만 아니라 환상 속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미숙한 아동은 돌보는 어머니의 두 가지 측면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두 가지 측면을 대상-어머니와 환경-어머니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명칭이 경직되게 고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두 측면, 즉 유아의 긴급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대상 또는 부분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의 측면과,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들을 막아주고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머니의 측 사이에 있는 커다란 차이점을 묘사하기 위해서, '대상-어머니'와 '환경-어머니' 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유아가 원본능 긴장을 다루기 위해 대상을 사용하는 것은 전체 환경의 일부분으로서 어머니를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환경-어머니는 애정을 가지고 아동의 존재감을 받아주는 사람이며, 대상 어머니는 원초적인 본능- 긴장의 목표물이 되는 사람이다. 관심의 능력은 유아의 삶에서 대상-어머니와 환경 어머니가 함께 만나서, 고도로 정교화된 경험으로부터 발달한다. 이때 유아는 비록 독립성의 발달에 속하는 내적 안정성을 갖기 시작한다.

좋은 상황에서, 아기가 성격 발달의 필수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융합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우선 아기는 본능에 기초한 대상 관계의 영역에서 온전한 환상을 경험해야 한다. 이때 그 대상은 결과에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만일 우리가 진행되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아동과 환경-어머니와의 관계는 훨씬 더 조용한 특성을 갖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게 될 때 그 결과는 관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내가 본질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수적인 좋은 상황은 이런 것들이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살아 있어서 아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이 어머니를 신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다른 어떤 것에 빠져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쯤 대상-어머니는 유아의 구강기 가학적 환상의 세력과 융합한 모든 본능 충동으로부터 오는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또한, 환경-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유아를 향해 공감적이며, 그의 자발적인 몸짓을 받아주고 즐거워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왕성한 원본능 - 욕동들을 수반한 환상은 대상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담고 있다. 아기는 자신이 대상을 먹는다고 상상할 뿐 아니라 대상의 내용을 소유하기 원한다. 대상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대상의 살아남는 능력 때문이지 아기가 대상을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의 다른 측면은 아기와 환경 - 어머니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때 어머니의 보호가 지나치면 아기의 공격성이 억압되거나 아기가 대상과 직면하지 못하고 대상을 외면할 수도 있다. 유아가 젖을 떼는 과정에서 겪는 공격성의 경험이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 어떤 유아들은 공격성의 발달과정에서 스스로 젖을 떼기도 한다.

좋은 상황에서 유아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양가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발달시킨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소모해버리면 어머니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아기가 환경-어머니를 위해 공헌함으로써 완화된다. 여기에서 환경 - 어머니에게 공헌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라게 된다. 유아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는 불안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 유아가 보유하고 있는 불안은 질적으로 수정되며 죄책감으로 발달한다.

본능 - 욕동은 주체로 하여금 대상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도한다. 이 죄책감은 유아가 대상을 무자비하게 사용한 후 몇 시간 안에 환경 - 어머니에게 공헌함으로써 완화된다. 또한, 신뢰할 만한 환경-어머니가 현존함으로써 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기회는 유아로 하여금 원본능-욕동들의 경험에서 더 대담해질 수 있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유아의 본능적 삶이 자유로워진다. 이때에 죄책감은 휴지 종이거나 잠재적인 것이 되고, 보상의 기회가 실패할 때만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순환과 보상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원본능 욕동과 관련된 유아의 죄책감은 더욱 수정된다. 이처럼 수정된 죄책감의 경우에 죄책감이라는 용어보다는 '관심' 과 같은 보다 긍정적인 용어가 더욱 더 적합해 보인다. 유아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본능적 충동과 그것에 속한 기능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건설적인 놀이와 일의 요소들 중의 하나를 제공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관심의 능력을 획득한다.

특히, 어머니가 유아의 불안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시간에서의 통합이 더욱 정적인 초기 단계의 통합에 추가된다는 점이다. 시간은 어머니에 의해 계속 다루어지며, 이것은 어머니의 보조적인 자아 기능의 한 측면이다.

그럼으로써 유아는 처음에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차차 개인적인 시간의 감각을 갖게 된다. 유아의 내적 세계 안에서 어머니의 상이 살아 있는 기간이 짧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내적 세계는 유아의 본능적 경험으로부터 온 좋거나 박해적인 파편들을 담고 있다. 아동의 내적 정신 실재 안에 대상의 상이 살아 있을 상태에 달려 있다.

나는 관심 능력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유아의 초기 단계와 관련해서 설명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 유아에게는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것과, 그의 본능적 삶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거듭 성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사례나 건설적인 사회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작업 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의 사례를 생각해 보라. 그에게서 일을 빼앗으면 그는 사회 안에서 있을 만한 곳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를 치료하는 의사를 생각해 보라. 의사 또한 환자를 필요로 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나는 관심의 능력의 발달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아직 온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관심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겠고, 다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진술하려고 한다. 대상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또는 환경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유아는 관심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원초적인 불안과 분열 또는 해체 같은 원초적인 방어를 사용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분리불안에 대해 논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아직 어머니와 아기 사이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외적으로 아동 돌봄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심각한 분리의 상처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죄책감의 부재

각 아동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중요한 것은 순응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진정한 감각(sense)을 갖는 것이다.

나는 순응에 기초한 도덕성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믿는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타고난 성향의 발달과 함께 아동 개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예로써, 어떤 어머니가 첫 두 아기를 키울 때는 아주 쉽게 키웠다. 두 아이는 제때에 소변과 대변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나 세 번째 아기는 계속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으며, 그녀는 아기를 돌보느라 마침내 등에 통증이 생겼다. 어머니는 세 번째 아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본래 착한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순응을 강요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위에서 방금 언급된 어머니는 첫 두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는 중요한 기술상의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세 번째 아기를 키울 때는 그렇지 못했다(그녀는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다. 만일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때 아기의 욕구가 반영된 미묘한 의사소통에 어머니로서 자연스럽게 응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기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손목에 관심을 가졌다).

아동을 받아주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자녀를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진료 시간에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심리치료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반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런 행동은 사정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느낀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죄책감은 개인에게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은 어떤 충동을 느끼고 깨물고(또는 과자를 먹고) 대상(어머니의 젖가슴을 먹는 생각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얼마나 끔찍스런 존재인가! 그러나 이 끔찍한 죄책감에서 건설적인 충동이 생겨난다. 만일 아동의 죄책감이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동은 충동을 허용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충동 대신에 공포를 느끼며, 이 충동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아동의 모든 감정이 금지된다.

(1) 신뢰할 만한 어머니가 없다면 아기의 건설적인 노력은 허사가 된다. 그때 죄책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아동은 다시 금지에로 내몰리거나 원초적 사랑의 일부인 그의 충동을 상실하게 된다.

(2) 더 나쁜 경우, 아기의 초기 경험들은 통합을 하고자 하는 아동의 타고난 경향성이 발현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따라서 하나의 전체 단위로서의 나를 이룰 수 없고, 어떤 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감도 있을 수 없다.

흔히 반사회적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도덕성(임상적으로는 죄책감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아동을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특히 이차적 습득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동은 바로 이 이차적 습득이 일어나기 전 단계 동안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흠치고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내몰리는 것이다.

반사회적 경향성의 문제와 관련된 과정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아동에게 충분히 좋은 과정이 있다.
- (b) 무엇인가가 이 과정을 방해한다.
- (c) 아동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자아 방어가 붕괴된다).
- (d) 아동은 질적으로 열등한 새로운 유형의 자아 방어를 재조직한다.
- (e) 아동은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하며 그 희망과 함께 반사회적 행동을 조직한다. 그 희망은 사회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빛나가기 시작한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잘못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얼마 동안 아이의 퇴행을 받아주거나 직접적인 정신치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아동은 박탈의 순간 이전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아동은 파괴성을 포함한 충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래 형성했던 좋은 대상과 좋은 인간이 통제하는 내적 환경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단계를 그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자녀를 둔 부모는 되풀이하여 얼마 동안 특별한 적응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비록 실제에 적용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아동은 본래 도덕성을 갖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이론을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인간이 도덕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항상 촉진적 환경과 타고난 성숙 과정이 함께 얽혀서 이루어가는 개인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열증 환자에게서 우리가 배운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다. 이 환자들은 어떤 점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매우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아마도 '치료' 되지 않고 불행한 상태 그대로 머무르려고 할 것이다. 정신건강은 어느 정도 타협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을 악한 것으로 느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고, 그 배신에 비하면 그들의 혼외 정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속임수를 사용한다.

각 아동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아동이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려면 어머니의 적응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 아동이 외적 실제 또는 신에게 전능함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전능함을 충분히 경험해야만 한다. 따라서 실제로 먹는 것만이 먹지 않는 것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창조적이지 않은 상태와 고립된 상태로부터만 대상과 세상의 창조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개인의 본질적인 고립으로부터 발달해 나오지 않고는 함께 있음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고립은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재등장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존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소모한다. 분열성 성격 장애자들(비록 내가 그들이 너무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존재 앞에서 겸허함을 느낀다)에게, 악은 바로 그들이 순응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데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이와 같은 영성한 설명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책감이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룬다는 생각이며, 아기는 발달과정에서 이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죽음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아기가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없다면, 그는 순응하는 자기나 거짓된 자기를 조직화한다. 이 거짓 자기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은 참된 자기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강력한 힘과 비교할 때, 사회의 도덕적 관습은 대수로운 것이 못된다. 청소년들(그들 중 얼마는 환자들인)은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또는 누구와 잠을 자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된 해결은 곧 끝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설프지만 진실이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아예 아이를 갖지 말거나(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가 현실 원리를 만날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리고 전능감이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충분히 전능 환상에 의해 속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능감은 주관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초기에는 실제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청소년 비행의 심리적 측면

(치안 판사들을 위한 강연)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우리가 감정을 사고로 대체할 때,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배제시킨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수를 범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의식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성가신 것일 수도 있지만, 책임있게 사고하는 사람들에게겐 분명히 간과될 수 없는 영역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직관적인 사람은 무의식을 배제하기는커녕 항상 자신의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사고형의 사람은 자신의 사고 안에 무의식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고형의 사람은 논리적이고자 노력한 후에 그것에 깊이가 없음을 발견하고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비이성적인 쪽으로 나아가기 쉬운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경향성이다.

무의식적 탐욕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학자들 억압된 증오심을 소홀히 여기는 정치가들, 류머티스나 다른 질병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우울증과 건강 염려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의사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또한 자전거와 만년필을 훔친 도둑이 실은 자신이 훔친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치안 판사도 있지 않은가?

범죄자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해도 그 진전이 감상에 기초한 것이라면 가치가 없다. 그것은 분명 반동을 불러올 것이며 그 진전은 없었던 것만 못할 것이다. 감상적인 곳에는 억압 또는 무의식적인 증오가 있으며, 이러한 억압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조만간 증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범죄는 대중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법과 그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대중의 보복 감정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치안 판사는 법정에서 대중의 보복 감정을 대신 표현해줌으로써 범법자를 인간답게 대우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는 치료해주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아주 명확한 전제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대중의 보복 감정을 강화시키지 않는 범죄란 없다는 것이다. 법의 기능 중의 하나는 대중의 무의식적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맹목적인 보복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비록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는 좌절을 느끼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열기가 식으면서 범죄자를 법정에서 다루도록 허용한다. 정의가 행해질 때 거기에는 만족감이 뒤따른다./범죄자를 병든 사람으로(그들은 실제로 아픈 사람이다) 간주하고 그들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은 무의식적 보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 아동은 어떤 아동인가? 단지 잘 먹고 잘 자라고 방긋거리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정상 아동은 그렇지 않다. 그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는 온갖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다. 정상 아동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놀라게 하고 지치게 하고 소모시키고 소란스럽게 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것이다. 사람들을 법정(또는

수용시설)에 서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유아기나 아동기 초기에 가정에서 일으키는 정상적인 말썽들과 비슷한 것들이다. 만일 아동이 일으키는 모든 말썽을 가정에서 버텨준다면, 그는 놀이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아동은 먼저 시험을 한다. 특히 부모와 가정(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의 안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이 시험은 더욱 중요해진다. 아동이 자유를 느끼고 놀 수 있고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는 먼저 가정의 틀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아동 정서 발달의 초기 단계에는 갈등과 붕괴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외적 실재와 맺는 관계는 아직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성격은 아직 잘 통합되어 있지 않다. 원시적인 사랑은 그 안에 파괴적인 충동을 지니고 있으며, 어린 아동은 본능을 견뎌내고 대처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아동은 환경이 안정적이고 인격적일 때 이러한 본능 충동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동은 초기에 절대적으로 사랑과 힘(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경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은 정서 발달에 필요한 자신의 생각과 상상의 내용을 너무나 두려운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없는 아동은 다른 곳에서 가정을 찾는다.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이 아동은 조부모, 아저씨, 아줌마, 친지와 학교에서 그의 가정을 찾는다. 아동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적절한 시기에 안정감을 찾았다면, 이 안정성은 아동의 성격 안에 자리를 잡을 것이며, 따라서 아동은 의존되어 있고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생후 첫 몇 달 또는 몇 해를 거쳐 차츰 독립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종종 아동은 실제 가정에서 얻지 못한 것을 학교와 다른 곳에서 얻는다.

반사회적 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안정성을 가정이나 학교대신에 약간 더 먼 곳, 즉 사회에서 찾고 있는 것이며, 이 안정성은 본래 그가 자신의 정서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에서 찾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보겠다. 아동이 설탕을 훔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인 좋은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아동은 어머니에게서 달콤한 어떤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실제로 이 달콤함은 그의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 즉 일차적 창조성으로부터 어머니와 그녀의 달콤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공격에서 어머니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공격은 아동의 원시적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동이 집 밖에서 무엇인가를 훔칠 때,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다만 그는 깊은 좌절감을 가진 채 어머니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아동은 그의 충동적인 행동에 한계를 그어주고, 흥분했을 때 자신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제한해주는 아버지의 권위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비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아동은 더 이상 어머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어머니를 보호해 줄 엄격한 아버지를 추구하는 급박한 요구를 만나게 된다. 아동이 추구하는 엄격한 아버지는 동시에 자애로운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강해야만 한다. 아동은 엄격하고 강한 아버지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만 그의 원시적 사랑의 충동과 죄책감, 회복하려고 하는 소망을 되찾을 수 있다. 비행 아동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의 능력은 점점 더 금지되며 그 결과 점점 더 우울해지고 인격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며, 마침내 폭력적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현실감을 느

낄 수 없게 된다.

청소년 비행은 그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아동이 반사회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반드시 병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반사회적 행동은 종종 강하고 사랑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기를 원하는 일종의 조난 신호(S.O.S)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행아동들은 어느 정도 병든 아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아동이 삶의 초기에 자신의 믿음 안에 통합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반사회적 아동은 강한 관리를 받는 동안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는 곧 광증의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아동은 다시 한번 외부의 통제를 불러들이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회에서 말썽을 피운다.

정서발달 초기에 자신의 가정에서 잘 양육 받은 정상 아동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는 좋은 환경을 발견하려는 경향성과 함께 '내적 환경'이라는 것을 발달시킨다. 반사회적인 병든 아동은 좋은 '내적 환경'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이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놀이와 일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정상 아동과 반사회적인 병든 아동이라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속해 있는 많은 아동들이 사랑을 가진 사람에 의해 몇 년 동안 통제를 받는다면, 그들은 안정된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아동들이다. 이런 점에서 6~7세 된 아동은 10~11세 된 아동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도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가정생활을 박탈당한 아동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보자. 방치된 아동들(비행아로서 소년 법정예 온 사례들)을 제외한다면,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개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보살핌과 사랑을 주고 점차적으로 자유를 허용하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후자가 없다면, 전자(개인 심리치료)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정된 대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리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사회적 경향성의 특성들

나는 비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반사회적 경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비행에 서처럼 반사회적 행동이 조직화될 경우 거기에는 이차적 습득과 사회적 반동과 같은 치료자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사회적 경향성은 정상적인 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정서발달 과정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어려움들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우선 두 개의 임상 자료를 제시해보겠다.

나는 아동 분석의 첫 사례로 비행 아동을 선택하였다. 나는 이 소년을 1년 동안 만났으나, 그 후 소년이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었다. 소년의 분석은 잘 진행되었고, 비록 그가 몇 번씩이나 곤욕스럽게 했지만, 그의 치료의 중단은 나와 소년 모두에게 고통스런 일이었다. 소년은 지붕 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지하실이 넘쳐흐를 정도로 많은 물을 틀어

놓기도 했다. 또 나의 자동차 문을 부수고 1단 기어에 놓은 채 차를 몰고 다녔다.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그의 치료를 끝내라고 명령하였다. 소년은 특수 학교로 갔다. 그는 지금 35세쯤 되었고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결혼했고 서너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반사회적인 인물과 관계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추후 조사를 꺼렸다. 나는 개인보다는 사회가 그를 추후 관리하는 문제를 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소년을 위한 치료는 정신분석이 아니라 그가 생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먼저 머무를 곳을 마련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정신분석이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이 사례 이후에 나는 온갖 부류의 분석가들이 반사회적 아동의 정신분석 치료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의 사례는 반사회적 경향성을 가진 아동의 치료도 특수한 환경적 돌봄과 함께 행해진다면 아주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는 한 친구로부터 그의 네 식구 중 맏아들에 관해 의논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 친구는 종교적 배경을 이유로 심리학에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소년을 직접 데려올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들의 훔치기 충동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그는 집에서 뿐 아니라 가게에서도 물건을 훔쳤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음식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훔치기의 의미를 설명해주었고, 그녀가 적당한 순간에 아들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해석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매일 저녁 아들이 잠자리에 든 후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는 그 시간에 별과 달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순간이 잘 활용될 수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들에게 그가 뭔가를 훔치는 것은 훔친 물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면 어떨는지요 다시 말해서 그는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부모의 사랑을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때 나는 그녀에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라고 조언하였다. 사실 나는 이 소년의 가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었지만 부모가 모두 음악가인 탓에 아동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박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에 나는 그 어머니로부터 내가 제안한 그대로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아이에게, 네가 돈이나 음식, 그리고 물건을 훔칠 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일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엄마의 말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아이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때때로 너무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녀석! 나는 너무 떨어져서 당신에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결코 다시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일 다시 의심스러워진다면 내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충격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을 훨씬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 이상 훔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지도부 선생님과 면담을 했으며, 아이에게는 사랑과 존중이 필

요하다는 것을 선생님에게 설명하였고, 그결과 그후 아이가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선생님이 협조를 해주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그의 흠치기는 재발하지 않았으며, 가족과의 관계 또한 크게 변화되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청소년기에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 시기를 거쳤던 일이 생각났다. 그녀는 대가족의 딸이로서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매우 엄격한 훈육을 받고 자랐다. 따라서 내가 행한 것은 이중의 치료 효과를 얻었는데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의 아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자녀를 돕고자 하는 부모를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은 실제로 부모 자신을 돕는 것이 된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진단명이 아니다. 이 용어를 신경증이나 정신병과 같은 다른 진단명칭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정상적인 사람이나 신경증 또는 정신병을 앓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이동은 가정생활에서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박탈당할 때 박탈을 경험한 아동 (deprived child)이 되며, '박탈 콤플렉스' (deprived complex)라는 것을 갖게 된다. 그때 그는 집에서 또는 더 넓은 바깥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아동은 반사회적 경향성 때문에 마침내 부적응은 아동으로 판별되어 부적은 아동을 위한 호스텔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그 아동은 이제 비행 아동이 되어 법의 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거나 비행 청소년을 위한 특수 학교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아동의 가정이 맡아야 할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동은 아동위원회(아동 조례 [1948]에 따라)에 인계되어 '보살핌과 보호'를 받게 되거나, 그를 받아주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실패할 경우, 이동은 반사회적 환자로 판명되거나 법정을 거쳐 소년원이나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아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상습적 비행 아동이 된다.

이 모든 것은 개별적인 정신의학적인 진단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 그런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관리를 받도록 강요한다. 치료자의 과제는 이 환자의 무의식적 욕구에 동조하는 것이며, 그 작업은 관리와 인내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희망을 의미한다. 물론 박탈을 경험한 아동이 항상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아동의 기본적인 특성은 희망의 결핍이다. 그는 희망을 느끼는 동안에 반사회적 경향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사회를 짜증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만일 그가 흠친 물건이 여러분의 자전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도둑질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흠치고자 하는 충동 밑바닥에 깔려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치료자가 비행 아동의 치료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치료자 자신이 도둑맞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을 희망의 징표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행동의 경향성을 보이는 아동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거듭해서 이 희망의 순간이 잘못 관리되거나 인내심의 부족으

로 그냥 낭비되거나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아왔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반사회적 경향성은 정신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희망의 순간을 만나주고 충족시켜주는 관리를 통해서 치료된다는 것이다.

반사회적 경향성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하나는 흠치기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파괴 행동으로 나타난다. 흠치기는 아동 자신이 찾는데 실패한 무엇인가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다. 그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파괴 행동은 아동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버텨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찾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잃어버린 환경을, 다시 말해서 아동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움직이고 행동하고 흥분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인간다운 태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의 이 파괴 행동은 사회 전체의 반동을 자극한다. 아동은 이때 엄마의 팔과 신체에서 시작해서 무한히 넓어질 수 있는 경계, 즉 그를 담아줄 수 있는 울타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몸, 어머니의 팔, 부모와의 관계, 가정, 친척을 포함하는 가족 관계와 학교, 경찰서가 있는 지역사회, 법이 있는 나라 등으로 확장되는 일련의 울타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 발달의 측면에서 반사회적 경향성의 초기 근원을 연구함에 있어서, 나는 이 두 가지 특성, 즉 대상의 추구하고 파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자 한다.

흠치기

흠치기는 거짓말과 함께 반사회적 경향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물건을 훔친 아이는 훔친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권리를 갖고 있는 어머니를 찾고 있는 것이다.

흠치기와 파괴성, 대상추구와 반동을 일으키는 자극, 리비도적 충동과 공격 충동의 두 가지 특성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나는 아동 안에 이 두 특성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존재한다고 제안한다. 그것은 본능들을 융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가 치료적 경향을 가리킨다. 리비도적 요소와 공격 요소(또는 운동성)의 융합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첫 박탈이 있었다면, 아동 정서 발달의 특수한 내용에 따라 흠치기와 상처 입히기 그리고 더럽히기 등이 혼합된 형태를 띤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융합이 덜 일어났을 경우에 첫 박탈이 있었다면, 아동의 대상추구와 공격성이 더욱 분리되어 나타날 것이며, 아동은 더 심한 해리 현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아동이 지닌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성은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바람직할 경우 그것은 상실했던 리비도와 운동성(motility)의 융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성가신 일을 겪는다. 예를 들어, 아기는 젖을 먹고 있는 동안 종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오줌을 싸다. 이것은 후에 잠자는 동안이나 잠에서 깬 때 일어나는 퇴행과 오줌싸기 등으로 나타난다. 유아가 가진 성가시게 하는 특성이 과장될 때, 그것은 그에게 어느 정도의 박탈과 반사회적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사회적 경향성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흠치기와 거짓말하기, 오줌싸기와 똥싸기 들을 포함한다. 비록 각각의 증상이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사회적 경향성의 공통된 요소는 그 증상이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면서도 그 나름의 가치(nuisance valu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지만 전부 다 무의식적인 것은 아니다.

반사회적 경향성의 첫 징후

박탈의 첫 징후는 아주 평범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제왕처럼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 복종과 반동이 혼합된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유아기 전능성(infantile omnipotence)과는 다른 것이다. 유아기 전능성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실재의 문제이다.

아주 일반적인 반사회적 증상은 탐욕으로서, 이것은 식욕의 금지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탐욕의 배후에는 박탈당했다는 무의식적 감정이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유아가 탐욕스럽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박탈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박탈을 회복하고자 하는 유아의 충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머니들이 유아의 탐욕스러움에 기꺼이 응해준다는 사실은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유아의 탐욕스러움은 성인의 탐욕과 같은 것이 아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유아가 현실 원리를 수용하는 시기에, 즉 어머니를 분리된 존재로 수용하기 시작할 때 어머니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는 다른 엄청난 본능 욕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욕구에 적응하는데 점진적으로 실패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원본능 욕구는 점차 좌절이 따라도 괜찮지만 자아의 욕구는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어머니는 본능 욕구를 만족시키는데는 실패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유아가 자아 지원적 어머니를 내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실제 자아 지원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내사된 자아 지원 어머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아의 자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해서는 안된다.

원시적인 사랑 충동은 무자비한 탐욕스러움과 같지 않다.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원시적 사랑 충동과 탐욕스러움은 어머니의 적응에 힘입어 차츰 분화된다. 어머니는 원본능 욕구에 완벽하게 적응해주는 데 실패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유아는 어느 정도 박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박탈 경험에 따른 유아의 탐욕스러움과 더럽히기 같은 박탈의 증상에 어머니가 부응 해준다면, 그에 따른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 탐욕스러움은 박탈의 원인을 제공한 어머니로부터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유아의 충동의 일부이다. 이 탐욕스러움은 반사회적이다. 그것은 흠치기의 전조이며, 어머니가 치료적 관점을 가지고 적응해줄 때 충족되고 치료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어머니의 치료적 적응은 쉽게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요인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어머니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녀가 생후 초기에 유아의 자아 욕구에 적응해 주지 못한 실패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어머니가 유아의 강박적 요구를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줄 때, 박탈이 일어났던 그 발생 지점 가까운 곳에서 박탈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박탈 경험으로 인해 생긴 증상은 치료자인 어머니가 유아에게 박탈 경험을 제공한 자신에 대해 증오를 표현 할 수 있게 해줄 때 치료될 수 있다.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원시적 사랑 충동을 충족시켜줄 때 어머니에게 아무런 의무감을 갖지 않는데 반해, 어머니에 의한 치료는 유아에게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져다준다. 이때 어머니에 의한 치료란 유아의 좌절에서 비롯되는 요구, 즉 성가시게 하는 요구를 기꺼이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머니에 의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다.

아기를 무작정 받아주는 어머니의 관대함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어머니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복잡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종종 이러한 관대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사실 이 관대함은 어머니 사랑의 실패에 따른 상처를 치료하는 요소이다. 그것은 치료요, 일차적인 사랑이라는 초기의 섬세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어머니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퇴행 행동에 대해서 그녀 자신의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그러한 어머니의 행동은 소위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충동적인 탐욕스러움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종의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그것 자체로서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어머니의 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버릇을 망칠 정도로 퇴행을 받아주는 어머니가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의 박탈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행을 허용하는 '응급조치'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탐욕스러움이 박탈에 따른 반응이며 반사회적 경향성의 증상인 것처럼, 똥싸기와 오줌싸기, 그리고 강박적인 파괴 행동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증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흔히 있는 문제로 야뇨증은 꿈꾸는 순간에 발생한 퇴행 때문이거나 또는 어머니의 몸에 오줌을 쌀 권리를 주장하는 반사회적 충동 때문이다.

흠치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는 물건을 사는 충동에 대한 언급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반사회적 경향성의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정신분석을 받는 환자에게서 흔하게 발견된다. 아주 오랜 동안 분석을 받아도 이런 종류의 증상은 전혀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증상은 환자의 신경증적 또는 정신병적 방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발생한 박탈에 대한 반응인 반사회적 경향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생일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은 예상되는 반사회적 경향성의 일부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는 행동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뚜렷한 목적없이 외출하는 행동과 무단 결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흠치기에 내포되어 있는 구심력에 의한 몸짓이 원심력에 의한 몸짓으로 대체된 것이다.)

최초의 상실

나는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반사회적 경향성의 밑바탕에는 초기에 잃어버린 좋은 경험이 있다. 유아가 재난의 원인이 환경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섭취한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사회적 경향성의 질적인 특수성이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자아가 이러한 사실을 지각할 수 있을 때 발달하는 것이며, 만일 자아가 그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면 정신병적 질환이 발생했을 것이다. 아동은 수많은 반사회적 충동

들을 드러내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초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된다. 그러나 반사회적 아동은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무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이다. 최초의 박탈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아나 어린 아동의 자아가 리비도적 요소와 공격적인(또는 운동성의) 요소를 융합해내는 시기인 것처럼 보인다. 희망적인 순간에 아동이 경험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신뢰할 만한 요소를 지닌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음을 지각한다.

대상추구라고 부를 수 있는 욕동을 경험한다.

무자비성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 무자비성은 직접적인 환경을 일깨우고 성가심의 요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직화한다. 환경이 공격성을 견뎌낼 수 있는지, 파괴를 예방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지, 성가심을 견딜 수 있는지, 반사회적 경향성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아동이 추구하는 대상을 제공해주고 또 그가 발견한 대상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아동은 여러 번 시험하고 확인한다.

다음 단계에서 아동은 인간관계 속에서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 절망을 넘어설 때 아동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호스텔의 보호사들과 직원들이 아동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분석 치료에 견줄 만한 치료를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 중의 하나와 이러한 일을 해낸다. 그러나 정상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도 자녀 중 하나가 반사회적 경향성을 드러낸다면, 그 아동을 성공적으로 키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반사회적 경향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을 생략했다.

행동화

자위행위

병리적 초자아, 무의식적 죄책감

리비도 발달단계

반복충동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전(pre-concern)으로의 퇴행

편집증적 방어

성과 관련된 증상

분리불안의 심리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젓떼기, 슬픔, 애도 그리고 우울함 등이다.

애도의 심리

'애도 그 자체는 개인의 성숙을 가능하는 지표이다. 애도의 기제는 복잡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대상을 상실했을 때 개인은 그 대상을 내사하고 그 내사된 대상은 자아에 의해 증오받는 대상이 된다. 임상적으로 이 대상은 어떤 한 순간에는 보다 증오의 대상이 되고 다른 순간에는 보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 내사된 대상이 지닌 심각성은 다양해진다. 애도 과정에서 개인은 일시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은 대상이 개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남으므로 해서 마치 그 대상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오가 더 우세해지면 뚜렷한 이유 없이 다시 우울해진다. 또한, 개인은 대상과 관계 맺거나 대상이 존재하지 못하게 된 실패를 떠오르게 하는 기념일이나 사건들을 통해 다시 우울해지기도 한다. 건강한 경우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면화된 대상은 초기의 강력한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은 대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생기를 되찾음으로 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

애도의 능력을 성취한 개인이라 해도 지적인 이해가 너무 없어서 이 과정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공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실에 관해 단순하게 알려줌으로써 아동이 애도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때 아동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입양 사실을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유아에게 어머니의 젖가슴과 어머니를 상실하는 것은 대상 뿐 아니라 대상을 사용하는 자신의 신체 기관, 즉 입을 상실하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 그 경우에 상실은 더욱 깊어지고 개인의 총체적인 창조 능력까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개인은 대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절망감뿐만 아니라 대상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어머니나 어머니 인물은 유아가 본능적인 경험을 하는 순간에 현존해줌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은 이 기간 동안에 점차 관심의 느낌을 형성해간다. 이 시기에 어머니를 상실하는 것은 그 과정을 역전시킨다. 유아가 엄마에 대한 관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곳에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동의 통합 과정은 취소되며 따라서 본능적 삶은 금지되거나 전체 성격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 결과 관심의 느낌은 상실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관심의 느낌은 점차로 강화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애도의 능력이라 불리는 성숙이 따른다.